

73) ②

(다)에는, 도시의 물질 문명 속에서 '상품들'로 전락하여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현대인들이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 즉 정신적인 가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말하자면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적 가치의 대립이 시상 전개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가)에는 가치의 대립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③ (나)의 '차디찬 묘, 파랗게 얼어'는 냉혹한 현실의 분위기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다)의 '연기가 나고, 고무 탄내, 소음 부엉거리'는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노란 달, 향기롭게 출렁이고'는 '아마존 강'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3, 4행의 배경 묘사는 화자가 드러내는 한탄의 정서를 암시하고, (나)의 8~11행의 배경 묘사는 비애에 젖은 화자의 정서를, (다)의 4~9, 12~13행 등의 배경 묘사는 화자의 갑갑하고 불쾌한 정서를 암시한다.

74) ③

③은 1, 2행에서 (가)의 3, 4행을 모방하고 있고, 빈부 격차라는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작품이다.

[오답풀이] ①, ⑤ (가)를 모방한 표현이 없다.

②, ④ 사회적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다.

75) ①

(가)의 화자는 '글 짓는 일로써 수심을 달래 보'지만 '날 맑아도 또 혼자서 탄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글 짓는 일이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의 화자는 시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의 화자에 대해 ①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② (가)의 화자는 황폐한 삶 속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가)에는 사람들의 본성이 환경 때문에 달라졌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76) ⑤

이 작품에서 화자가 처한 현실은 이정표가 눈 속에 묻혀 버려서 갈 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나)의 화자가 '낮선 집에 돌을 던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갈 길을 탐색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시의 후반부에서 개가 짓자 비애의 감정에 빠지는 화자의 태도는 의지적인 면모를 찾을 수 없게 한다.

77) ⑤

이 시가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에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로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으므로 ⑤와 같은 계획은 시의 주제를 부각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78) ①

①에서 '이정표'가 눈 속에 묻혀 있는 상황은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화자는 방향을 상실함으로써 한탄하는 것인데, 이러한 화자의 정서와 처지는 ①에도 잘 드러나 있다. ①의 화자가 자신이 갈 길을 선택해야 하는 '열십자 복판'에 서서 '갈 길은 하나 없소'라고 말하는 것은 방향 상실의 비애를 토로한 것이다.

79) ②

달나라의 세계를 언급하는 아버지와 나는 갈등 관계에 있다. 여기에서 지섭은 아버지에게 달나라의 세계를 알려준 존재이기에 부자간의 갈등을 조정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지섭은 아버지와 나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아버지와 지섭의 이야기를 보면 달나라의 세계가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아버지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를 왜 달나라로 설정하였는지 질문할 수 있다.
- ③제시된 글에서 난장이 가족은 집의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명희 어머니 역시 아무 저항 없이 이사를 가고 만다. 갈 곳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왜 저항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 ④이 글은 도시 빈민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철거민들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왜 작가가 도시 빈민 중에서 철거민을 소재를 선택하였는지 질문할 수 있다.
- ⑤집을 비워야 할 시기에 영희가 가출을 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왜 이러한 구성을 택하였는지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80) ②

①다음날이란 난장이 가족이 집의 매매계약서를 쓴 다음날이다. 서술 시점이 바뀐 것은 맞게 볼 수도 있으나 대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난장이 가족이 집을 판다는 매매계약서를 쓰는 순간 영희의 행동은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비극적 상황과 대조되어 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이게 보이게 한다.
- ③아버지의 손에 들린 책을 매개로 하여 아버지와 지섭의 과거 일이 삽입된다.
- ④아버지와 지섭의 대화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영희를 찾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⑤내 머릿속에는 가출한 영희에 대한 생각이 이어지면서도 행동은 돌을 던지고 있다.

81) ④

제시된 부분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삽입된 것으로 이 집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집을 파는 사건 자체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짧은 표현 속에 그간의 사정을 담아내고는 있으나 이들 가족이 떠돌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숙명을 읽어내기는 힘들다. 다만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고(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 이 사건 자체가 가족에게는 비극적인 일이며 어쩔 수 없는 일임(철거 계고장) 짐작하게 한다.

82) ②

나의 아버지 난장이는 이상 세계로 달나라를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설명대로라면 달나라는 그만큼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으며, 그 이상 세계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83) ④

아버지가 돈을 받는 순간에 삽입된 지섭의 목소리는 불만을 담고 있다. 이것은 집을 팔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지섭의 판단과, 이를 통해 난장이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긴장을 누그러뜨리기보다 오히려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영희의 감정을 제시하여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본문에서는 어머니의 심정이나 생각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시나리오에서는 어머니가 과거 이 집을 지을 때의 회상 장면을 삽입시켜 놓았다.
- ③사나이의 소리에 행복했던 과거의 회상에서 집을 팔아야만 하는 비정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 ④어머니가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집의 매매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겹치는 어머니의 멍한 표정과 장면의 바뀔,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84) ①

①은 '서술자'가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중 인물(허용가)'이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는 장면 전환이 여타 고전 소설에 비해 잦은 편이며, ③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인 과장과 해학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④는 '-것다', '-보세' 투의 서술자 개입을 통해 청중에게 작중 상황을 설명해 주는 투가 나타나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는 권선징악과 효행 등의 덕목을 실용의 신분 추락과 회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85) ①

답은 ①이다. ②는 도사가 실용을 꾸짖는 대목에서, ③은 실용의 신분이 추락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④는 태몽을 풀이해 주는 대목을 통해, ⑤는 실용이 쫓겨난 뒤 집으로 돌아올 때 하인에게 박대당하는 대목을 통해 각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①에 대해서는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 ④

실용이 허응에게 패해 쫓겨난 상황을 고려한다면 답은 ④이다. 적반하장이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실용의 처지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다.

87) ④

‘부적’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결정하는 주술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매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보기>의 예시는 ‘노래’이다. 이 노래로 인해 변괴가 사라지고 갈등이 해소되었으므로 부적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88) ②

실용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울고 웃는 인물이다. 집에서 쫓겨났을 때는 신세 한탄을, 도사에게 목숨을 구걸할 때는 비굴한 태도를,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기뻐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답은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한 ②이다.

89) ②

(나) 문단은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겹치지 않는 한 쌍의 키(공개키와 비밀키)를 준비한다는 내용이지,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면 정보를 주고 받는 당사자 외에는 그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한다고 했으므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효용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90) ④

(다) 문단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컴퓨터끼리는 우선 공개키를 서로 교환한 다음 상대방 컴퓨터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다음 전송하면, 상대의 컴퓨터는 자신의 비밀키로 이를 해독한다고 했다. (마) 문단에서 비밀키에서 공개키를 얻기는 쉬우나, 그 반대로 어떤 공개키에서 비밀키를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끼리는 상대방 컴퓨터의 비밀키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오답피하기 : ① (나)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를 주고 받는 컴퓨터끼리는 공통의 비밀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 비밀키를 준비해서 사용한다. ② (라) 문단에서 비밀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정보는 공개키A로만 해독이 가능하다고 했다. ③ (마) 문단에서 아무리 빠른 계속 속도를 가진 컴퓨터라 할지라도 공개키에서 비밀키를 구해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언급은 했지만, 그렇다고 공개키 암호화의 안전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⑤ (다)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개키로 암호화된 정보는 해당 비밀키를 알아야 해독이 가능하다고 했다.

91) ③

이 글의 문맥에서 ‘빼내다’는 몰래 남의 정보를 빼돌려내다의 뜻을 가진다. 따라서 ③이 적절하다. (예) 회사에서 비밀 장부를 빼내다/컴퓨터에서 정보를 빼내다 등

92) ⑤

원래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는 함께 전송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암호화된 단어는 상대의 컴퓨터가 자신의 공개키로 해독한 후에 전송받은 원래의 단어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를 따진다고 했으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원래 단어를 암호화해서 전송할 경우 상대의 컴퓨터가 이를 해독하는 것은 맞지만, 원래 단어와 비교하는 것

이지 암호화된 것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93) ③

셋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매체의 의해 형성된 이미지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응집된 시간'에 의존하며, 뮤직 비디오의 경우 시간적 연속성 구조가 파괴된 장면들이 돌발적인 사슬로 엮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은 '확장된 시간'이 잘못 진술된 것이다.

94) ⑤

매체 작품에 관한 정보들을 통해 전통적인 미학론자의 예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⑤는 '오늘날의 매체 작품은 매체들 간의 상호 소통의 결과이다', '새로운 장르 혼합 현상이 나타난다'와 같은 정보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은 둘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②는 첫째 문단의 셋째 문장, ③과 ④는 넷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95) ③

③은 매체 시대 이전에 중시되었던 지각 방식이다.

96) ①

여기저기서 조금씩 복사하여 책을 만드는 경우, 이는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쥘다는 의미를 갖는 '조합(組合)'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담합(談合) :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③ 병합(併合) : 둘 이상의 기구나 단체, 나라 따위를 하나로 합침, ④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⑤ 접합(接合) : 한데 대어 붙임. 또는 한데 닿아 붙음

97) ①

마지막 단락을 보면, 글쓴이는 전통적인 예술 방식과 매체 시대의 새로운 예술 방식이 모두 문화적 동인으로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문화 현상에 담긴 두 문화 방식을 모두 존중하는 평가가 합당하다.

[오답풀이] ②는 두 예술 방식이 절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③과 ④는 어느 특정 방식만을 옹호하는 견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